

## 프랑스어시칭교육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리 일 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수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수내용을 잘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킬수 없으며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김정일전집》 제9권 228페이지)

최근년간 프랑스어교육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학문자체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내용과 방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언어학연구에서 의미론연구가 중시되고있으며 언어에 대한 분류학적해명보다 언어습득과 그 사용에 보다 가까운 언어통신능력의 기초를 해명하는데로 나가고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어문법교육에서도 형태론과 문장론을 분리시키던 교육으로부터 언어실천에 보다 접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현재의 문법교과서들에서는 문장구성의 규칙들을 품사체계의 서술로부터 시작하여 단어결합과 문장구성의 규칙들을 서술하던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 문맥과 구체적인 정황속에서 그것들의 실용을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또한 문법교육에서 활용련습의 다량성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주의가 돌려지고있다.

문법교육의 이러한 세계적추세와 외국어습득의 합법칙성의 견지에서 볼 때 현행문법교육에서는 규범규칙들을 주는데 많이 치우치면서 언어실천과 적지 않게 유리되는 부족점들이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어문법교육에서는 빈번히 프랑스어시칭을 한갓 문법적시간문제로만 대하고있다. 결과 프랑스어에 다른 언어들보다 왜 시칭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매 시칭들의 활용의 기초에는 시간의 개념밖에 어떤 원리적문제들이 작용하는가 하는것을 옳게 인식할수 없게 되였으며 시칭의 의미와 기능도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 Le matin, il s' est levé à 5 heures.

Le matin, il se levait à 5 heures.

위의 두 문장에 대한 리해에서도 차이점을 찾지 못하고 보통 《아침마다 그는 5시에 일어나곤 하였다.》로 번역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첫 문장은 《아침 5시면 그는 일어나 있었다.》로서 끝난 행동의 반복을 표현하며 행동의 종결과 그 결과의 현실성을 강조하지만 둘째 문장은 《아침마다 그는 5시에 일어나곤 하였다.》로서 진행되는 행동의 반복을 강조한다.

이것은 프랑스어동사시칭의 본질을 현재, 미래, 과거라는 시간적개념과 선후차의 시간적관계의 개념으로서만 설명하면 문법적범주로서의 시칭들을 정확히 리해하고 옳게 활용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시칭을 주로 시간적개념으로 해석하던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 태에 대한 개념을 동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프랑스어시칭교육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태적의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시키는것이다.

프랑스어동사의 태적의미는 동사의 어휘적의미와 시칭적형태에서 실현되는 어휘문법

적개념이다.

프랑스어동사의 태적의미는 동사가 지적하는 행동의 진행방식, 성격을 가리키며 동사의 어휘적의미와 단어조성적덧붙이, 동사의 변화형태들에서 구체화되는 완료태/미완료태의 대립관계와 그 세분화된 개념들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러므로 동사의 시칭형태들에서 표현되는 완료태, 미완료태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선후차의 시간적개념과 다르며 특히 이 개념들은 동사가 표현하는 행동의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프랑스어동사의 태적의미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면 과거에서 미완료태적의미로서 지속성을 표현하는 반과거시칭도 과거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행동을 표현할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수 있다.

《le matin, se lever à 5 heures, faire sa toilette, manger, aller à l'école》과 같은 표현구들을 가지고 과거에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표현하는 문장을 만들게 하면 다음과 같은 2가지 대답을 들을수 있다.

례: ① Le matin, il s' est levé à 5 heures, a fait sa toilette, a mangé et est allé à l' école.(아침마다 그는 5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식사한 다음 학교에 갔다.)  
○

② Le matin, il se levait à 5 heures, faisait sa toilette, mangeait et allait à l' école.(3개 행동의 연속성이 아니라 동시성을 표현)×

우의 실례에서와 같은 2가지 답이 나오게 된 원인은 태적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지 못하고 순수 과거에서 진행되는 행동을 표현한다는 시간적의미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반과거시칭(두번째 실례인 경우)은 과거에서 지속태적의미를 표현하는 시칭으로서 연속적인 행동들을 표현할수 없다.

프랑스어시칭교육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프랑스어시칭들을 태적의미의 견지에서 구분해주고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해주는것이다.

태적의미의 견지에서 프랑스어시칭들은 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시칭들과 미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시칭들로 구분된다. 단순시칭들은 미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시칭들(단순과거제외)이며 복합시칭들은 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시칭들이다.

프랑스어에서 시칭에 따르는 완료태와 미완료태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미완료태시칭	완료태시칭
직설법	présent(현재) imparfait(반과거)  futur simple(단순미래)	passé composé(복합과거) plus-que-parfait(대과거) passé simple(단순과거) passé antérieur(선편과거) futur antérieur(선편미래)
조건법	conditionnel présent(조건법현재)	conditionnel passé(조건법과거)
접속법	subjonctif présent(접속법현재) subjonctif imparfait(접속법반과거)	subjonctif parfait(접속법과거) subjonctif plus-que-parfait (접속법대과거)
명령법	impératif présent(명령법현재)	impératif passé (명령법과거)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완료태시칭과 완료태시칭이 갈라져있지만 흔히 프랑스어문법교과서들에서는 이러한 대칭관계를 강조하지 않고 선후차의 시칭적관계에서만 대립관계를 주고있을뿐아니라 때 시칭의 명명에서도 태적의미가 안겨오도록 명백히 반영해주지 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명령법복합형도 명령형과거라고 명명함으로써 그 진짜기능을 전혀 짐작할 수 없게 하고있다. 명령은 항상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과거의 행동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없다는것은 일반적리치이다.

명령법복합형은 단순형에 비하여 태적의미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가 확정적이고 명백한것을 표현하므로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서 다른 행동에 대한 앞선 관계를 표현한다.

예: *Ayez terminé ce travail jusqu' à 8 heures.*(8시까지 이 작업을 끝내시오.)(확정적 이므로 《반드시》라는 의미를 담고있음)

프랑스어시칭교육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프랑스어시칭에서 표현되는 태적의미와 어휘적인 태적의미(행동방식)와의 호상작용에 대하여 인식시키는것이다.

프랑스어동사는 어휘적의미에 따라 *choquer*(부딪치다), *casser*(깨다) 등 순간적인 행동, *commencer*(시작하다), *partir*(떠나다) 등 시작을 나타내는 행동, *achever*(완성하다), *interrompre*(중단하다) 등 종결을 나타내는 행동, *rester*(남아있다), *demeurer*(머물러있다) 등 지속을 나타내는 행동, *caresser*(쓰다듬다), *aboyer*(짖다) 등 반복을 나타내는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 등으로 갈라볼수 있다.

처음 3개의 부류에서는 행동이 자연적인 한계점을 지향하며 일단 행동이 수행되면 완전히 종결되는것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동사들은 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동사부류로 볼수 있다. 나머지동사부류는 행동이 그 어떤 자연적인 한계점도 가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지속적인 행동을 표현한다는데서 공통점을 가지므로 완료태적동사부류로 볼수 있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단어의미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태적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모든 프랑스어동사들이 임의의 시칭들에서 사용될수 있는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있다.

예: *Il casse une bouteille.* ×

*Il regarde la montagne.* ○(그는 산을 바라보고있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사 *casser*(깨다)는 전형적인 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동사로서 현재시칭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지만 미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동사 *regarder*는 현재시칭과 잘 어울려 쓰인다.

프랑스어에서 어휘적인 태적의미와 시칭에서 표현되는 태적의미는 호상작용한다.

반과거시칭에서의 태적의미와 동사의 어휘적의미에서의 태적의미의 호상작용관계를 보기 위하여 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동사 *partir*와 미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동사 *lire*의 행동진행과정을 비교해볼수 있다.

예: *Il lisait quand le téléphone a sonné.*

*Il partait quand le téléphone a sonné.*

반과거시칭은 시작과 종결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행동을 표시한다. 그러나 동사 *partir*

가 가지고있는 행동의 성격은 지속적인것이 아니라 종결적인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립되는 두 태적의미가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lire가 가지고있는 고유한 미완료태적의미는 반과거시칭이 표현하는 태적의미와 완전히 부합된다.

그러므로 우의 두 문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례: Il était en train de lire quand le téléphone a sonné.

(전화가 올 때 그는 책을 읽고있었다.)

Il était sur le point de partir quand le téléphone a sonné.

(전화가 올 때 그는 떠나려는 참이었다.)

프랑스어시칭교육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프랑스어동사의 형용사적형태인 과거분사의 태적의미는 동사의 타동성, 자동성, 어휘적인 태적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는것을 인식시키는것이다.

프랑스어동사의 과거분사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피동의 뜻을 표시할수도 있고 능동의 뜻을 표시할수도 있다.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피동의 뜻을 가지며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능동의 뜻을 가진다.

례: un homme tué (tr.) → (qui est tué)

un homme sorti (int.) → (qui est sorti)

프랑스어동사의 타동성과 자동성은 동사의 완료태적 및 미완료태적의미와 결합하여 과거분사의 태적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미완료태타동사의 과거분사가 표현하는 행동은 보어에 가해진 행동자체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이 형태의 과거분사가 표현하는 행동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술어의 행동과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나 완료태동사의 과거분사는 행동의 결과상태를 표현한다.

례: une chanson écoutée → une chanson qu'on écoute en ce moment

un homme arrivé → un homme qui est arrivé

우리는 프랑스어동사를 비롯한 중요한 품사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외국어교육에 옹계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을 떠메고나갈 능력있는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